

고현래 『냉전과 개발 : 자립경제를 둘러싼 1950년대 한미관』 (호세이대학출판국, 2018년)

*** 책 개요**

본서는 현대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정치·경제 문제를 발생시킨 계기의 하나를 살피고자 한국의 경제발전을 가능하게 한 초기 조건의 형성 과정에 대하여 수출지향공업화와 국가주도형공업화라는 2개의 관점에서 밝히고 있다. 본서는 그러한 초기 조건의 형성 과정을, 특히 미국의 영향을 고려하여, 한미 양국정부의 내부분서를 사용한 역사학적 접근법에 의해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본서는, 한국은 이승만 정권(1948~60년), 미국의 경우 아이젠하워 정권(1953~61년)에 해당하는 시기의 한미관계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서는 1950년대와 경제발전이 본격화된 1960년대의 연속성과 단절성을 한미관계의 관점에서 밝히고 있다.

*** 저자약력**

2004년 와세다대학 사회과학부 졸업
2006년 와세다대학 사회과학연구과 석사과정 수료
2017년 도쿄대학 종합문화연구과 박사과정 수료
2018년 도쿄대학 한국학연구센터 교무보좌원

주요 업적으로는 「1950년대 한국·오키나와 관계 : 반제국주의, 독립, 그리고 미군기지」 『류큐·오키나와 연구』 (제4호, 2013년), 「이승만·장면 양정권의 대동아시아 경제외교 : 필리핀, 중화민국과의 무역협정 체결과정을 중심으로」 (제781호, 2015년), 「한국 수출지향공업화의 초기조건의 형성 : 아이젠하워 정권기 한미간의 외환개혁을 둘러싼 협의과정을 중심으로」 (제184호, 2016년) 등이 있다.

[관련 URL] <http://www.h-up.com/books/isbn978-4-588-64545-7.html>